

『세이토(靑鞆)』에 나타난 일본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 田村俊子와 平塚らいてう의 담론을 중심으로 -

이지숙 *

목 차

1. 들어가며
 2. 『세이토(靑鞆)』와 여성의 근대
 3. 일본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 3-1. 田村俊子の <여성의 저항>
 - 3-2. 平塚らいてう의 <여성의 연대>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며

여성작가의 재평가는 여성문학의 전통을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여성작가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의 작품에 대해 남성문학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무의미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체험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재나 주제의 차이를 열등함의 증거로 삼는 비판 척도는 재고되어야 한다.¹⁾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1929)에서 여성 작가는 남성작가들보다 더 많이 볼 수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1) 『현대일본문학전집(現代日本文学全集) 증보 결정판(増補決定版)』(1970, 筑摩書房, 전 143권)에서는 14명의 여성작가만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현대문학연구사전(現代文学事典)』(1983, 東京堂出版)에서도 1920년대 이후 137명의 작가를 선정했으나 여성작가는 11명에 그치고 있다. 근대 일본문학을 개관하기에 적당한 『근대일본문학의 추진(近代日本文学のすすめ)』(1999, 岩波文庫別冊 13)에서 소개된 30명의 근대 작가 중, 여성작가로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와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2명에 불과하다.

있으며 남성작가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본다고 언급했다. 억압의 주체는 억압의 대상에 대한 배려가 어려워서 그를 고려하거나 관찰할 수 없지만 억압되어 온 여성은 억압의 상황에서 억압 주체도 억압의 대상도 더 진지한 시선으로 더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작가의 글이 특별한 것이다.²⁾

일본 여성작가들의 글이 문학연구의 새로운 장으로 도입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에 의한다. 여성작가의 글은 페미니즘 비평과 젠더 비평에 의해, 기존의 남성 연구가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평가되었다. 와타나베 스미코(渡辺澄子), 하세가와 케이(長谷川啓) 등의 여성 연구자들은 여성문학의 전통을 확립코자 가장 먼저 여성작가의 생애와 텍스트를 추적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1999년 『현대 여성문학 사전(現代女性文学辞典)』³⁾, 2000년 『여성문학을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女性文学を学ぶ人のために)』⁴⁾ 등의 연구서들은 기존의 문학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여성작가의 작품을 재평가하며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2005년 『처음 배우는 일본 여성문학사(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의 「근현대편(近現代編)」⁵⁾의 간행을 기점으로 근대 여성문학의 통시적 연구가 시도되어 여성문학의 ‘현재’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케 되었다. 또한 2007년 8월, 근대 이후 120년 간의 여성문학을 집대성한 『[신편] 일본여성문학전집 제 1권([新編] 日本女性文学全集 第一卷)』⁶⁾의 간행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 『메이지 여성문학론(明治女性文学論)』⁷⁾이 출판되었다. 제 1권을 시작으로 [신편]은 여성문학 연구가만이 편집한 총서로 금후 1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단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여성작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재평가 작업은 그들의 작품을 발굴하거나 업적을 재평가하여 그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일본 내의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일본여성문학의 연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⁸⁾ 여성작

2) 김진기·조미숙·황수진(2002),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 p.291.

3) 村松定孝·渡辺澄子編(1999.9), 東京堂出版.

4) 渡辺澄子編(2000.10), 世界思想社.

본 연구서는 2007년 9월 한국어로 번역된 단행본이 출판되었다.(와타나베 스미코 저, 『여성문학을 배우는 사람을 위하여』, 한일근대여성문학학회 역, 어문학사)

5) 岩淵宏子·北田幸恵編著(2005.5), ミネルヴァ書房.

6) 岩淵宏子+長谷川啓(監修) 渡辺澄子(編集)(2007.8), 葎柿堂.

총래 문학사의 첫 페이지는 메이지(明治) 시기에 등장한 여성작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가 중심이 되었으나, 본 총서에서는 근대 일본의 여성문학 여명기에 활약한 마야케 가호(三宅花蒲), 나카지마 쇼엔(中島湘煙), 기무라 아케보노(木村曙), 와카마쓰 시즈코(若松賤子), 시미즈 시킹(清水紫琴) 5명의 대표작품이 수록되었다.

7) 渡辺澄子+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2007.11), 『明治女性文学論』, 翰林書房.

8) 2004년 일본의 신화페 5000엔의 앞면 초상으로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가 선정되었고 그 영향으로 박영선, 이상경, 유은경에 의한 번역본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도 <개인>으로서 근대적 자아를 주창하기 시작한 『세이토(靑鞆)』(1911.9-1916.2)의 근대 여성 담론 양상에 주목하였다. 『세이토』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담론형성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 6권 52호로 여성문예지의 면모를 갖추며 남성이 주도하는 문단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당시의 남성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세이토』에 나타난 <남녀 양성의 상극(男女兩性の相剋)>과 <레스비언 러브(lesbian love)>라는 여성의 저항과 연대를 여성담론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일본 근대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양상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 1884-1945)의 『생혈(生血)』(『靑鞆』第一卷第一号, 1911.9)과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1886-1971)의 「치가사키로, 치가사키로(茅ヶ崎へ、茅ヶ崎へ)」(『靑鞆』第二卷第八号, 1912.8)의 두 작품이다.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2005.5), 박영선 역, 북스토리

『해질 무렵 무라사키』(2005.5), 박영선 역, 북스토리

『나 때문에』(2005.5), 박영선 역, 북스토리

『키재기』(2005.10), 이상경 역, 생각의 나무

『히구치 이치요 작품선집』(2005.11), 유은경 외 역, 제이앤씨

기타, 이상복의 세이토의 창간호의 번역과 박애숙의 사타이네코(佐多稲子)의 연구서, 필자와 안정화, 한·일여성문학회가 각각 일본 근대 여성문학단편집을 출판하였다.

① 『일본 근대 여성문학 입문』(2005.3), 이지숙·안정화, 어문학사

② 『일본여성 단편소설 선집』(2006.8), 한·일여성문학회 역, 어문학사.

③ 『사타이네코 작품연구 -인간평등의 간망-』(2007.3), 박애숙, 어문학사.

④ 『세이토(일본 최초의 여성문예잡지)』(2007.9), 세이토사, 이상복 외 역, 어문학사.

일본 근대여성문학 관련 주요 박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金華榮(2004), 「近代日韓における「女性」をめぐる言説

一羅惠錫と日本との関わりを中心に一」,

大阪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金真淑(2004), 「近代女性論に形成と展開 一日本と韓国の比較研究一」,

東北大学大学院 国際文化研究科.

孫知延(2004), 「近現代韓国における民族言説とジェンダー」,

名古屋大学大学院 人間情報学研究科.

金英順(2005), 「『靑鞆』の文学的評価をめぐって 一作品分析を軸にして一」,

専修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한국) 최연(2004),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문학 연구-여성성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김주영(2004),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문학의 페미니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2. 『세이토(靑鞆)』와 여성의 근대

1911년 히라쓰카 라이초를 중심으로 일본여성해방운동의 원점이 되었던 『세이토』⁹⁾가 창간되었다. 일본 최초로 여성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여류문예잡지는 ‘여류문학의 발달을 꾀하고 각자 천부의 특성을 발휘케하여 훗날 여류천재를 배출’할 것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즉, 일본의 페미니즘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기를 맞이했다고 평할 수 있다.

역사적인 라이초의 『세이토』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1911.9)는 가부장 제도하의 봉건적 주종관계에 구속되어 있던 여성층이 발언한 인권선언이었으며, 인간으로서 평등을 구가한 생명찬가였다. ‘지금의 여성은 달이다. 타인에 의해 살아가며, 타인의 빛에 의해 빛이나는 병자와 같은 창백한 달’인 현실을 직시하며 ‘태양’과 같은 ‘진정한 인간’이 되길 염원하는 이 어구는 전후 여성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여성이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오랜 도덕과 법률의 파괴’ 선언으로 일본 페미니즘의 상징적 어구로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반영하듯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타율적인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다는 현실을 라이초와 그 동지들은 간파하고 있었다.

『세이토』가 문예지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타게 고키치(尾竹紅吉, 1893-1966)¹⁰⁾의 출현에 의한다. 솔직하며 진솔한 고키치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세이토사는 자유분방한 신여성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입게되었다. 매스컴의 질타를 받은 고키치의 행동을 다음과 같다. 고키치는 세이토사의 광고를 받으러 메이존코노스(メイゾン鴻の巣)라는 카페에 갔었는데, 이곳에서 카페 주인은 오색주(다섯 색으로 분리되는 칵테일)를 권해주었다. 칵테일의 신비로운 색채에 매료된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의 기사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일명 오색주(五色酒) 사건이다. 또한, 라이초와 함께 요시하라(吉原)유곽

9) 『세이토』의 5명의 발기인은 나카노 하츠코(中野初子), 야스모치 요시코(保持研子), 기우치 조코(木内錠子),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이다. 7명의 창조자는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 오카다 야치요(岡田八千代), 加藤鑄子(가토 가즈코),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구나키다 하루코(国木田治子), 고가네이 기미코(子金井喜美子), 모리 시게(森しげ)이며, 사원은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과 더불어 후에 오타게 고키치(尾竹紅吉), 가미지카 이치코(神近市子), 이토 노에(伊藤野枝) 등의 수재들이 잇달아 참가하며 여성해방의 담론을 일본 역사상 최초로 펴냈다. 1916년까지 간행된 『세이토』는 여성의 성에대한 자기 결정권, 여성의 가사 전담의 부당성, 여성의 경제적 독립 필요성 등 당시 일본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脇田晴子·林玲子·水原和子編(1987), 『日本女性史』, 吉川弘文館, p.228참조.)

10) 고키치는 1911년 1월 세이토사에 입사였다. 그녀는 1911년 6월경 벌어진 「오색주(五色の酒)」 「요시하라 등누(吉原登楼)」 사건으로 인해 이후 신여성(新しい女)의 중심 인물로 칭해진다.

에서 일하는 불우한 여성들의 삶을 취재하러 갔던 일이 요시와라 등누(吉原登楼) 사건의 발발이 되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의 언론은 사실을 왜곡해 흥미본위로 보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키치와 세이토 사원들은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라이초의 집에 돌과 험박장이 날아들고, 잡지 판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단 고키치가 퇴사하면서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세이토사를 불량집단으로 여기는 세상적 평가가 만들어졌다.¹¹⁾

당시 언론은 『세이토』에 모인 여성들을 ‘신여성(新しい女)’이라고 야유·조소했지만, 라이초는 「나는 신여성이다(私は新しい女である)」(1913.1)¹²⁾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뒤엎는 강렬한 논리를 전개했다. ‘남자들의 편익에 의해 만들어진 구도덕과 관습’을 거부하며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세이토』 제 1조 ‘본사는 여류문학의 발달을 도모하고’라는 어구가 「나는 신여성이다」의 선언 이후 ‘본사는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고’로 대폭 개정되었다. 야유·조롱을 포함한 호칭 ‘신여성’은, 『세이토』가 문예잡지를 넘어서 여성해방 사상의 성격을 현저하게 드러낼 수 있게된 계기가 되었다.

3. 일본 근대 여성들의 글쓰기 양상

3-1. 田村俊子の <여성의 저항>

필자는 서론에서 페미니즘 문학비평에 의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작가의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 중에서도

11) 三好行雄·竹盛天雄編(1977), 『近代文学3』, 有斐閣双書, p.249참조.

12) 「나는 신여성이다(私は新しい女である)」

나는 신여성이다.

적어도 신여성이 되려고 나날이 노력하고 있다.

진실로 영원히 새로운 태양이다.

나는 태양이다.

적어도 태양이 되려고 나날이 노력하고 있다.(中略)

신여성은 과거에 학대받던 구여성이 걸어간 길을 묵묵히 따라 갈 수 없다.

신여성은 남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무지하고 노예가 되어 한낱 고기 덩어리와의 같았던 구여성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신여성은 남자들의 편익에 의해 만들어진 구도덕과 관습을 깨뜨려 버리길 원한다.(中略)

나는 신여성이다. 태양이다. 유일한 존재이다.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신여성은 남자의 이기심 위에 구축된 구도덕과 구법률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나날이 새로운 태양의 明德을 갖는 心靈위에, 신종교, 신도덕, 신법률이 시행되는 신왕국을 창조하려고 한다. (平塚らいてう(1983), 『平塚らいてう著作集①』, 大月書店, pp.257-259.)

가장 주목되는 작가는 다무라 도시코이다. 도시코는 50년대 세토우치 하루미(瀬戸内晴美)에 의해 ‘관능의 작가’ ‘치정의 작가’¹³⁾로 폄하되어져 문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하세가와 케이(長谷川啓)·구로자와 아리코(黒沢亜里子)編의 『다무라 도시코 작품집(田村俊子作品集)』 전 3권(1987·12, 1988·5, 1988·9,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의 간행을 계기로 도시코는 뛰어난 페미니즘 작가로 연구되기 시작한다.

도시코는 1901년 일본여자대학(日本女子大学) 국문과를 병으로 인해 중퇴하고 고타 로향(幸田露伴)의 문하에 입문해 제 1작 『쓰유와케고로모(露分衣)』를 발표해 호평을 얻었다.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 여배우를 지향해 무대에 서기도 한다. 1909년 고타 로향의 문하생인 다무라 쇼교(田村松魚)와 결혼한다. 도시코의 작품에는 부부간의 불화가 주된 테마로 등장하는데 이는 쇼교와 도시코 부부의 실생활이 반영된 것이다. 도시코와 쇼교의 신혼시절, 그의 소설은 전혀 팔리지 않아 두 사람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었다. 당시 그는 빈곤한 생활을 타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반강제적으로 소설을 쓰게 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소설 『체념(あきらめ)』이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신문 현상소설에 1등 없는 2등으로 당선되었고, 이로서 도시코는 정식 작가로 등단하게 되었다.¹⁴⁾

1911년 『생혈(生血)』 이후 『맹세(誓言)』(1912), 『여성작가(女作者)』(1913), 『미이라의 립스틱(木乃伊の口紅)』(1913), 『호라쿠의 형벌(泡烙の刑)』¹⁵⁾(1914),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1915)등을 잇달아 발표하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여성의 새로운 자아 형태를 <남녀 양성의 상극(男女兩性の相剋)>의 관계로 추구한다. 이 소설들은 도시코와 쇼교의 결혼생활이 소재가 된 자전적 소설이라고 일컬어지며, 관능과 <남녀 양성의 상극>¹⁶⁾을 테마로 도시코는 일약 인기작가로 성공을 거둔다.¹⁷⁾ 『맹세』와 『호라쿠의 형벌』의 작품에서는 여성의 새로운 자아의 형태를 <남녀 양성의 상극>의 관계에서 추구하며, 남편에게 순종적인 아내가 남편과 극도의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맹세』의 여주인공 세이코

13) 瀬戸内春美(1959), 『田村俊子』, 角川書店.

14) 졸고(2004),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 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pp.338-339 참조.

15) ‘호라쿠’란 은나라 주왕(紂王)때 행해지던 형벌. 불에 달군 동기둥(銅柱) 위로 죄인을 걸게 했다는 형벌.

16)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의 대부분은 남성의 지배를 거부하는 여성의 자아 주장과 관습에 대한 저항을 그린 <남녀양성의 상극(男女兩性の相剋)>을 주제로 한다.

17) 당시의 2대 문예지인 『신초(新潮)』(1913·3, 1917·5) 및 『주오고론(中央公論)』(1914·8)에 3차례씩이나 <田村俊子論>의 특집이 나올 정도로 도시코는 문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渡辺澄子編(2005), 『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 - 俊子新論』, 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p.153.)

는 남편과의 확립(確執)을 ‘나’에게 들려주는 형식을 취한다. 그 내용은 2년 전부터 애인관계였던 남녀가 1년 전에 결혼해, 2년 전에 두 사람이 걸었던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만난 미소년 스님을 바라본 아내의 얼굴이 붉어진 하찮은 일로 부부는 다투게 되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왜 저와 헤어질 때 저를 죽이지 않는 거죠” 라며, 남편에게 자기주장을 하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호라쿠의 형벌』에서는 결혼 8년차에 접어드는 게이치(慶次)·류코(竜子)라는 부부의 확립(確執)이 중심 내용이다. 아내와 젊은 연인 히로조(宏三)와의 ‘키스’를 남편이 알게되고 이를 발단으로 남편은 “당신이 저지른 짓을 어떤 행동으로 납득해야 할지. 당신을 이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며 꾸짖으며 사과할 것을 요구해도, 아내는 “내가 그이(宏三)를 사랑하는 것도, 당신(慶次)을 사랑하는 것도, 그건 제 의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죄악이라면 죽여주십시오”라고 남편에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1872-1896)의 『우라 무라사키(裏紫)』(1896)를 연상시킨다. 18)

『맹세』와 『호라쿠의 형벌』의 부부 사이에 발생된 대립이라면 『생혈』은 미혼남녀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녀양성의 상극>이 그려진 최초의 작품인 『생혈』로 연구범위를 한정시켜 논하고자 한다. 『생혈』(1911)은 『세이토』 창간호의 수록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일본근대 최초의 진정한 페미니즘 소설¹⁹⁾이다. 『생혈』은 남녀의 연애(성관계는 갖은)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남성이 능동적이며 권력적이라면 여성은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애라는 것은 남성지배 즉, 여성은 가부장제의 지배를 피해갈 수 없게된다.

연인사이로 추정되는 미혼남녀, 유코(ゆう子)와 아키지(安芸治)의 대립은 두 사람이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후부터이다. 여주인공 유코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혼전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능욕된 듯한 견디기 힘든 신체 감각에 사로잡힌다. 이 소설이 1911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당시 여성의 성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유코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의 신체가 순결한 ‘꽃잎에 맺힌 이슬에 질식해 죽’기를 바란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로 몸을 씻어봐도, ‘피부를 한 점씩 도려내어도’ ‘원래의 모습’ 즉, 순결했던 예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는 슬픔에 젖어 절규한다. 소설작품에 흔히 묘사되는 성과 사랑의 형태는 남성 중심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18) 『호라쿠의 형벌』과 『우라 무라사키』는 여성의 간통을 테마로 한다. 이 두 소설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사이에 아내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9) 岩淵宏子・北田幸恵編(2005), 『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近現代編】』, ミネルバ書房, p.9.

래서 남성은 능동자이며 가해자, 하늘, 위가 되며 이에 비해 여성은 수동자이며, 피해자, 땅, 아래가 되도록 강요받는다. ‘양손과 양발이 꼭 끼는 쇠고리가 채워진’ 억압된 상황 하에 유코는, 자신이 저항해야될 대상이 남자(아키지)임을 깨닫고 금붕어²⁰와 박쥐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직접적인 저항을 시도한다.

1장에서 유코는 금붕어가 풍기는 비릿한 냄새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무언가에 대항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녀는 ‘홀웃 옷깃을 여미던 금색 편’으로 ‘중오스러운’ 금붕어의 눈알을 찌른다. 유코가 ‘자신의 더럽혀진 신체’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를 지닌 채 금붕어의 눈알을 찌르면서 자신의 집게손가락까지 상처를 내는 행위는 남자(아키지)를 공격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남자 냄새’까지 공격하는 ‘가학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박쥐라는 상징적 표현은 2장에 등장한다. 유코는 아키지와 함께 남녀 아이들이 펼치는 곡예를 관람하게된다. 유코는 박쥐가 ‘남자 하카마를 입은 여자의 생혈을 빨다’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박쥐가 상징하는 것은 여자를 지배하려는 남자 즉, 여자아이를 고용한 곡예단 고용주와 아키지이다. 여기에는 남성의 지배를 거부하는 여성이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라는 제도에 애인, 또는 남편과 상극·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유코의 저항은 페미니즘적이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등, 공정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페미니즘에 의하여 저항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협소한 여권신장의 틀을 벗고 보다 보편적인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할 때 ‘여성’이란 단순히 남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²¹⁾

3-2. 平塚らいてう의 <여성의 연대>

신여성의 중심적 인물로 꼽히는 라이초는 정부의 검사원(檢査員) 장까지 역임한 아버지 히라쓰카 데지로(平塚定二郎)의 딸로 현모양처교육의 전형이었던 東京女子高等附属高女(お茶の水女学校)를 졸업하고, 그 후 日本女子大学校 가정과에 입학한다. 충효를 설교하는 아버지에 역겨움을 느낀 그녀의 생활은 탈선의 연속이었다. 사랑에 대한 소설을 썼다가 이 소설을 높게 평가해준 소세키의 제자 모리타 소헤이(森田草平, 1881-1949)와 사랑에 빠졌다. 1908년 3월 21일, ‘나는 결코 사랑을 위해 죽는

20) 여기에서 금붕어는 도시코의 남편 다무라 쇼교(田村松魚)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이름에 어(魚)라는 한자가 있듯이 쇼교를 빗대어 금붕어로 형상화한 것이다.

21) 김진기·조미숙·황수진(2002), 앞의 책, p.5.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다'라고 쓴 유서를 남기고 소헤이와 함께는 뿔인 시오하라(塩原)로 떠났다. 결국 사회적 사건이 된 유부남과의 자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라이초는 신문의 가십거리가 되었으며, 소헤이는 여성운동가이자 사회명사였던 라이초와의 연애 사건을 소재로 『매연(煤煙)』(1909)을 신문에 연재하였다. 이 때 사회적 비난은 일방적으로 라이초에게 쏟아졌는데, 곤경에 처한 그녀는 1911년 어머니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세이토』를 창간하였다.

이 시기 여성작가들은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능동적인 성담론을 펼치며²²⁾,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틀로 기능하던 이성애의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한다. 이에 대해 호리바 기요코(堀場清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신 헌법과 함께 민법이 개정되고 이에(家)제도가 붕괴되어 남녀간의 연애가 해금될 때까지, 여성간의 동성애(sexual orientation)는 현재에도 상상하기 힘든 의미와 보편성이 있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²³⁾ 『세이토』에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언설은 1913년부터 시작되지만, 그 최초는 여성간의 동성연애에 관한 것이었다.

「치가사키로 치가사키로(茅ヶ崎へ茅ヶ崎へ)」는 1912년 8월에 간행된 『세이토』 제2권 8월호에 발표되었다. 「등근 창에서(円窓より)」라고 제목 붙인 칼럼란에 라이초가 쓴 옛세이로,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가 보내온 편지를 라이초가 소개하며 답장하는 형식이다. 작품 첫머리에서의 '어떤 일'이란 간법적으로 1912년 7월 고키치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오색주(五色酒) 사건과 요시와라 등누(吉原登楼) 사건을 칭한다. 당시 불명예스러운 가십거리로 등장한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은 일제히 신여성(新しい女)이 곧 『세이토』라는 비판 일색의 기사를 전개했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지방 세이토사 사원들 중에는 구독중지와 탈퇴를 원하는 사원이 속출하였다. 이에 책임을 통감한 고키치는 자살미수사건을 일으키며, 이후 그녀는 결핵 발병으로 인해 쇼난(湘南)의 치가사키(茅ヶ崎)로 요양을 떠나게 되었다. 세간의 비난에 대한 책임을 고키치가 지게되고 사태는 일단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이로 인해 라이초는 고키치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고키치는 결핵을 선고받고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큰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편지를 라이초에게 보낸다. 편지를 받아본 라이초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이 감정을 소년의 가슴에 던져두고 싶다. 힘껏 포옹하고, 피가 나올 정

22) 『세이토』과 그 주변에 흐르고 있던 동성애적 흐름은 소설에도 나타난다. 간자키 쓰네(神崎恒)의 「雜木林」(1913.1), 스가와라 하쓰(菅原初)의 「10일의 친구(旬日の友)」(1915.3), 가와다 요시(川田よし)의 「여자친구들(女友達)」(1915.3)등에서는 여성 사이의 친밀한 우정과 에로틱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 編(1998), 『『靑鞆』を読む』, 学芸書林, p.270.)

23) 堀場清子(1988), 『靑鞆の時代』, 岩波新書, p.108.

도로 키스하고 싶다”라며 그대로 고키치의 집으로 향한다.

고키치를 내 세계 속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나의 포옹과 키스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나는 모른다. 정말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갑자기 고키치 마음의 모든 것이 타오르리라고는. 불이 되리라고는.²⁴⁾

(『靑鞜』第二卷第八号, 1912년 8월)

이 텍스트에서는 여성간의 연대, 레스비언 러브가 담론화되었다. 라이초는 고키치와의 관계에서 “몸끼리의 만남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 이것은 여성간의 연대 나아가서는 동성애적 표현을 주저없이 표출하며 이성애가 정당화된 남성 사회에 도전한다.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자매애이다. 자매애는 여성에게 공통된 억압을 이기도 한다. 자매애는 여성에게 공통된 억압을 인식함으로써 함께 단결하는 것이다. 아드리엔 리치(Rich, Adrienne)는 레스비언 연속체(Iesbian continuum)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강제적 이성애와 레스비언 존재』(1980)에서 여성간의 자매애가 풍부한 내면생활을 공유하고, 남성의 횡포에 대항하며 단결하고, 정치적 지원을 실제로 부여하는 것과 같은 여성끼리의 일차적이며 다양한 강한 결속을 포함하는 것²⁵⁾이라고 말한다. 라이초 또한 메이지민법이 만들어 놓은 성을 속박하는 죄사슬 — 부모가 정하는 결혼, 임신의 의무, 출산, 육아, 남편의 방종에 견디며 이혼을 못하는 현실 — 을 ‘여성의 한평생에 걸친 권력복종의 관계’ 「세상의 부인들에게(世の婦人達に)」(1913.4)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성간의 동성애는 성을 속박하는 권력복종의 죄사슬이 개포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라이초와 고키치의 행위는 여성의 연대의식의 표상이며, 복종의 죄사슬을 단절시키려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²⁶⁾

4. 나가는 말

여성의 글쓰기는 억압의 사회구조와 관련성을 지닌다. 억압의 문화가 여성 언

24) 『靑鞜』(夏刻)(1983), 第二卷八号, 不二出版. pp.82-83.

25) 리사 터틀, 유혜련·호승희 역, (1999), 『페미니즘 사전』, 동문선, pp.250-251.

26) 와타나베 스미코(渡邊澄子)는 여성을 밀실에 밀어 넣어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단절시켜 「여덕(女德)」이라는 정보만 흘러 마인드 콘트롤되던 당시에, 자신들의 처한 현실 세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라이초와 고키치의 언행을 「레스비언 페미니즘」에 의한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渡邊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学論』, 世界思想社, p.6.)

어를 남성의 언어와 다르게 구성하였고, 여성의 언어는 공식화된 남성 담론을 거부하며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자기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근대 신여성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응시하고 문학으로서 직접적인 대항을 시도했다. 본고에서는 『세이토』에 참여한 다무라 도시코와 히라쓰카 라이초의 문학을 중심으로 신여성들의 ‘저항’과 ‘연대’의 담론에 주목하였다.

도시코는 1910년대 혜성처럼 나타나 여성의 입장에서 <개인주의>를 추구한 작가이며 여성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인 작가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생혈』은 신여성의 시대를 개척할 목적으로 간행된 『세이토』의 창간호에 실린 작품이며, 신여성에게 있어 가장 절실한 테마였던 <남녀양성의 상극>을 주제로 삼는다. 여성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소설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혼전관계 이후 외롭고 쓸쓸해야하는 여주인공 유코를 통해 남녀관계의 종속성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하겠다.

1910년대 여성 오피니언 리더인 히라쓰카 라이초는 『세이토』의 창간사에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1911.9)와 「나는 새로운 여자이다(私は新しい女である)」(1913.1)로 신여성 문학의 출현을 주도하였다. 라이초는 <레스비언 러브>라는 여성간의 연대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가 강요하는 현모양처주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의 자아해방을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생활 방식에 갈등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남녀양성의 상극>과 <레스비언 러브>라는 여성담론은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들이 근대적 자아를 지닌 한 개인으로서 전환될 수 있었던 새로운 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

【参考文献】

- 텍스트 -

『生血』, 『田村俊子作品集』第一卷(1987.12~88.9), 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茅ヶ崎へ、茅ヶ崎へ」, 『青鞥』第二卷第八号, 夏刻板(1984), 不二出版

- 國內文献 -

김진기·조미숙·황수진(2002),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 p.5 p.291.
김은희·안혜련·최은정·이지숙·안노 마사히데(2004), 『신여성을 만나다 - 근대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pp.338-339.
로즈마리 퍼트남 통, 이소영 역(2000),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 문화사, p.351 참조.
리사터틀, 유혜련·호승희 역(1999), 『페미니즘 사전』, 문음사, p.269 참조.
메기 험, 심정순·염경국 역(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p.24.
이지숙·안정화(2005), 『근대일본여성문학입문』, 어문학사.
한일비교문학연구회편(2005), 『비교학자가 본 일본, 일본인』, 현대문학, p.128.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pp.118-119.

- 日本文献 -

岩淵宏子·北田幸恵編(2005), 『はじめて学ぶ日本女性文学史【近現代編】』, ミネルバ書房, p.9
瀬戸内春美(1959), 『田村俊子』, 角川書店.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 編(1998), 『『青鞥』を読む』, 学芸書林, p.270.
中山和子·江草満子·藤森清編(1998), 『ジェンダーの日本近代文学』, 翰林書房, p.99.
日本女子大学 文学部 日本文学科 岩淵研究室編(2003), 「『青鞥』と日本女子大学校」, p.1.
三好行雄·竹盛天雄編(1977), 『近代文学3』, 有斐閣双書, p.249 참조.
村松定孝·渡辺澄子(1999), 『現代女性文学辞典』, 東京堂出版
平塚らいてう(1983), 『平塚らいてう著作集①』, 大月書店, pp.257-259.
堀場清子(1988), 『青鞥の時代』, 岩波新書, p.108.
らいてう研究会編(2001), 『『青鞥』人物事典110人の郡像』, 大修館書店, p.7.
渡辺澄子(1998), 『日本近代女性文学論』, 世界思想社, p.6.
渡辺澄子(2001), 『青鞥の女·尾竹紅吉伝』, 不二出版, p.343.
渡辺澄子編(2005), 『今という時代の田村俊子 - 俊子新論』, 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p.7.

要 旨

田村俊子と平塚らいてうは『靑鞆』のいわゆる<新しい女>である。らいてうは明治44年に創刊された『靑鞆』に「発刊の辞」、「元始、女性は太陽であつた」を載せた。これによって、近代日本の高らかな女性解放宣言が始まる。田村俊子の『生血』は、『靑鞆』の創刊号に寄稿された小説である。相愛の男女(安芸治とゆう子)が旅館で一夜を明した翌日の、言いようもなく苛ら苛らした一日の心理を、女側から描いた瞳目すべきフェミニズム小説である。この小説には早くも女性解放の視点が芽生えている。このような作品は、男性作家の書く「恋愛小説」などには決して現れることのない、女性の視点からの「恋愛小説」である。『生血』は「両性の相剋」という当時の自我実現を目指す「新しい女」にとって最も切実なテーマを提起した俊子の初めての作品である。

一方、らいてうと紅吉の恋愛は、<新しい女>のレスビアンラブと呼ばれている。自分も好んで男装したらいてうは「少年愛」になぞえて7歳年下の紅吉を愛したのである。明治45年「五色の酒事件」や「吉原登楼事件」のために靑鞆社社員の動揺、事件に対する責任を感じた紅吉は結核の発病を機に湘南の茅ヶ崎へ転地療養することになった。「茅ヶ崎へ、茅ヶ崎へ」では病死も予感される紅吉に向けたらいてうの切迫した恋情を告白するものになっている。

キーワード： 靑鞆 田村俊子 平塚らいてう 女性言説
男女両性の相剋 レスビアンラブ

투 고 : 2008. 2. 29
1차 심사 : 2008. 3. 15
2차 심사 : 2008. 3. 29

住 所 : (301-130)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43 금호어울림(문화마을)APT
102동 702호
電 話 : 010 -718 -3339
e-mail : aozora26@hanmail.net